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에 따른 인기아와 배척아 판별

Discriminant Analysis of Popular and Rejected Children Based on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이경화(Kyeong-Hwa Lee)¹⁾

정혜영(Hye-Young Jung)²⁾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test the differences in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between both popular and rejected children, and to thereby verify the discriminance of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for both types of children.

52 popular children and 41 rejected children from among a pool of 202 6th grade elementary students were select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discriminant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listen up (sub-factors of perceiving), self-presentation, planning, and coding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popular and the rejected children. Second, only negotiation and cooperation strategies revealed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popular and the rejected children, while other sub-factors of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indicated broad indifference between them. Third, it was only the factor of planning among 5 factor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4 factors within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which indicated that it was the most discriminant predictor between the popular and the rejected childr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comprehensive program is needed to improve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of rejected children.

¹⁾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²⁾ 대동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e-Young Ju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aedong College, Bugok 2-dong, 373-4 Geumjeong-gu, Busan 609-715, Korea
E-mail : jhy0116@daum.net

Key Words :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competence), 갈등해결전략(Conflict-Resolving Strategies), 또래지위(Peer Status), Popular children(인기아), Rejected children(배척아),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I. 서 론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가정에서 또래로 점차 확장시켜 나가며, 이러한 또래관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과거에 비해 이른 연령부터 형식적 교육기관에 다니면서 가족 이외의 사람들, 특히 또래 혹은 친구와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는 기회는 더욱 증가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휴대폰 등의 매체를 통한 또래 간 사회적 관계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확장되고, 또래 집단만의 가치와 경험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점차 커지고 있다. 즉, 아동의 사회화에 있어 또래나 친구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수직적인 성인-아동간의 관계와는 달리 아동의 또래관계는 수평적이며, 이러한 수평적 관계 속에서 아동들은 생각을 표현하고 갈등을 경험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상호호혜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또래관계 내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또래집단에서의 수용여부에 관심을 갖는데, 아동이 또래집단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수용되고 있는가의 여부는 아동들의 적응 및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한 아동들의 학교 탈락률이 2-8배 더 높으며, 초등학교 3학년의 학급에서 인기도는 18세 때 정신건강을 잘 예언해 주는 요인(Goleman, 1995)이라는 연구에서 또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아동기에 또래에 수용되지 못한 경험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학교중퇴, 정신 병리, 비행, 범죄, 자살 등과 정적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이은혜 · 김정

윤 · 오원정, 2001; Parker & Asher, 1987), 낮은 수준의 또래수용 경험이 비행이나 범죄의 예측변인으로 밝혀지면서(문은영, 1994; Kupersmidt, Coie, & Dodge, 1990), 또래수용 경험은 아동 발달에 있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아동 사회화의 주요 변인으로 또래관계 내 또래수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래수용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아동의 사회성 발달수준을 이해하는 척도로 삼아왔다(이현숙, 2000).

또래수용성은 아동에 대한 다른 아동들의 선호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선호도와 또래에게 수용 또는 거부되는 정도에 따라 아동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하는 사회적 지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Coie, Dodge, & Coppotelli, 1982), 그 중에서도 사회적 선호도는 인기도라는 의미로 아동이 또래에게 수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사회적 선호도에 따라 또래지위가 나누어진다.

사회성 측정법(sociometry)으로 측정된 또래지위에는 ‘인기아(popular)’, ‘양면아(controversial)’, ‘보통아(average)’, ‘무시아(neglected)’, ‘배척아(rejected)’로 구분되며(Coie, Dodge, & Coppotelli, 1982), 이들 또래지위 중에서 수용적 특성과 비수용적 특성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인기아와 배척아를 들 수 있다(정선진, 2000).

인기아와 배척아의 특성이나 관련변인을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기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며(이경미, 1992; 임연진, 1998),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사교성이 높고, 유머와 재치가 있으며, 명랑하고 활동적이다(Dodge,

1983). 타인에 대한 승인, 규칙에 대한 설명, 타인을 설득하며 작업하는 등 타인을 수용하는 행동 특성을 보이며, 인정 표현과 긍정적 수용행동이 높다(김인실, 1993). 반면, 배척아는 반사회적 행동, 낮은 학업성취, 높은 공격성, 과업 수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 특성을 보이고(Coie et al., 1982), 부적절한 놀이, 적대적인 언어, 또래 배척, 또래 구타 등의 행동을 하며 다른 집단의 아동보다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적은 특성이 보고되고 있다(Dodge, 1983). 또한 배척아는 인기아에 비해 협동 및 자기 조절의 기술이 부족하고(김윤경, 1997), 반항-불신적 성향(김은정, 2001)과 충동성이 높다(윤옥인, 1995)고 밝혀진 바 있다. 그리고 5가지 또래지위 중 인기아와 배척아만 별도로 추출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들도 다수 있는데(강화정, 2007; 김외열, 1989; 김인실, 1993; 남운학, 1994; 박인진, 1994; 윤옥인, 1995; 이혜옥, 1991; 현인숙, 1999), 이러한 연구들에서 인기아와 배척아는 5유형의 또래지위에서 양극단에 위치하면서 사회성, 공격성, 언어표현, 인성, 학업성적 등에서 대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또래지위를 구분하는 새로운 변인을 탐색하고자 할 때 해당 변인이 인기아와 배척아를 잘 판별하는지를 우선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왕따’ 혹은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아동의 심리적인 부적응과 사회문제들이 많아지면서 또래관계의 유지와 갈등해결에 요구되는 사회적인 기술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중 의사소통능력은 또래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 중 하나이다(Asher & Oden, 1977; Riggio, 1986). 의사소통능력은 타인과 관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수단으로 타인과 적절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김소영, 2010).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송미선, 1995; 이근영, 1999; 장혜정, 1997; Betancourt, 2003; Black & Logan, 1995; Hazen & Black, 1989)들인데, 또래수용도가 높은 유아는 명확하고 응집적이며, 반응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반면, 또래수용도가 낮은 유아는 또래의 요구나 제안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도움주거나 제안하기와 같은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 혹은 또래지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사소통능력의 사회적 측면을 설명함과 동시에 보다 높은 연령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경우 의사소통능력이 또래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 다른 사회적 기술로 갈등해결전략을 들 수 있는데, Pollard(1985)는 갈등해결전략을 또래관계에서 서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상호작용을 성취시키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또래관계에는 항상 갈등이 잠재하고 있으며 이 갈등의 해결 여부에 따라 건설적 또래관계의 지속 혹은 종결이 이루어진다(Lausen, Hartup, & Koplak, 1996). 또래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잘 해결하여 놀이를 지속하는 아동은 또래로부터 선호되는 반면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한 아동은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여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송이 · 박경자, 2001). 즉 갈등은 아동들의 또래관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요인이면서 아동의 또래관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갈등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보고 갈등을 잘 해결하

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즉, 또래관계에서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보다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또래관계의 유지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갈등의 적절한 처리방식에 의해 사회적 기술이 촉진될 수 있다(박승민, 1993)는 점에서 갈등해결방식 또는 갈등협상전략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 혹은 또래지위에 영향을 끼치거나 주요요인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아동의 또래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강선영 · 김경림 · 오근남 · 권현정 · 김수진 · 이연무 · 권희경 · 서정화 · 정해선, 1987; 박인전, 1989; 심미옥, 1996; 송순, 2002; 강화정, 2007; Newcomb, bukowski, & Pattee, 1993)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성격, 자아개념, 정서지능, 학업성취도와 또래지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으며,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전략과 또래관계 혹은 또래지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로는, 의사소통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사이에 높은 상관을 보고한 연구(김진경 · 유안진, 2002), 갈등해결전략과 또래지위에 대한 연구(김송이 · 박경자, 2001; 김지현, 2009; 김표선, 2003), 의사소통기술과 갈등해결 전략 모두와 또래지위와의 관계를 본 연구(김소영, 2010; 신선영, 2009) 등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이 연구들은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 각각과 또래지위와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상관 및 차이검증을 실시하거나 시설거주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구별적 특성 혹은 학대경험과 또래지위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을 살펴본 연구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또래관계가 중요하며 또래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기술, 즉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이 또래지위 중 대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 또래지위인 인기아와 배척아를 판별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인기아와 배척아로 구분된 집단간의 사회적 기술에서의 구별되는 특성을 드러내고, 두 집단간 차이를 가장 잘 구분짓는 설명변수의 조합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또래관계의 개선 혹은 중재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얻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기아와 배척아간에는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은 인기아와 배척아를 판별할 수 있는 예측력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에 소재하는 Y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 202명 중 사회성 측정검사에 의한 또래지위 분류법(Coie et al., 1982)에 따라 인기아와 배척아로 분류된 93명이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이유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도당(gang group) 형성 시기로 도당이라는 또래집단에 속해 '우리-인식(we-consciousness)'을 가지고 집단적 활동

〈표 1〉 성별에 따른 인기아와 배척아 구분

구분	남(%)	여(%)	계(%)
인기아	23(44.2)	29(55.8)	52(100.0)
배척아	25(61.0)	16(39.0)	41(100.0)
계	48(52.0)	45(48.0)	93(100.0)

을 즐기는, 또래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김남순, 2003; 정원식·강주태, 1981), 또래지위를 5년간 종단적으로 측정한 Coie와 Dodge(1983)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5-6학년에 처음 또래지위를 측정한 학생들의 경우 그 지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초등 고학년이 되어야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이은혜, 1985)하기 때문이다.

인기아와 배척아는 각각 52명과 41명이며, 아동의 성별에 따른 인기아와 배척아 구분은 다음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연구도구

1) 사회성 측정검사

Coie 등(1982)의 사회성 측정법을 기초로 배정현(2003)이 제작한 검사지를 사용하여 또래내 지위를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동들에게 무기명으로 학급에서 같이 앉고 싶은 친구와 같이 앉고 싶지 않은 친구,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와 초대하고 싶지 않은 친구를 각각 3명씩 쓰도록 한 후 각 아동이 또래들로부터 받은 긍정지명(Like Most : LM)의 수와 부정지명(Like Least : LL)의 수를 학급별로 표준점수(Z점수)로 변환하였다. 표준점수인 LM에서 LL을 뺀 점수를 사회적 선호도(Social Preference : SP) 점수로 계산한 후 Coie 등(1982)의 분류 기준에 따라 또래지위를 분류한 후 인기아와 배척아 집단에 해당하는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래지

〈표 2〉 또래지위 분류 기준

또래지위	구분조건		
인기아	SP > 1	LM > 0	LL < 0
배척아	SP < -1	LM < 0	LL > 0

LM : 표준화된 긍정지명 점수

LL : 표준화된 부정지명 점수

SP : 표준화된 사회적 선호 점수

위 분류기준은 다음 표 2와 같다.

2) 의사소통능력 척도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이석재·장유경·이현남·박광엽, 2003)중 초등학교 생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생애능력 측정도구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세 가지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의사소통능력 척도는 의사소통능력이 작용하는 데 내재하는 5개 능력요소로 구분되며, 총 4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단계 평정척도로 되어 있으며 49점에서 245점 사이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 척도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척도의 내용, 문항 수, 신뢰도는 다음 표 3과 같다.

3) 갈등해결전략 척도

아동의 또래간 갈등해결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용으로 개발된 갈등해결전략척도(이은혜·고은주·오원정, 2000)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적절하도록 수정, 보완한 하지원(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표 3〉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척도의 내용, 문항수 및 신뢰도

구분	내용	문항수	신뢰도(Cronbach's α)
해석능력	정보수집	7	.599
	경청	7	.632
역할수행능력	고정관념적 사고 극복	7	.695
	창의적 의사소통	7	.739
자기제시능력	자기드러내기	7	.744
목표설정능력	주도적 의사소통	7	.729
메시지전환능력	타인관점이해	7	.809

5단계 평정척도로 되어 있다. 전체 문항은 16문항이며, 각 하위척도별로 4점에서 20점 사이의 점수가 산출된다. 척도의 내용, 문항수, 신뢰도는 다음 표 4와 같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PASW Statistics 18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인기아와 배척아의 의사결정능력 및 갈등해결전략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의사결정능력 및 갈등해결전략

에 의한 인기아와 배척아의 판별을 위해서는 단계별 판별분석(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인기아와 배척아간의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전략의 차이검증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에서 인기아와 배척아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표 4〉 아동의 갈등해결전략 척도의 내용, 문항수 및 신뢰도

하위척도	내용	문항수	신뢰도(Cronbach's α)
절충 및 협력전략	친구와 내가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를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거나 친구와 나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방법을 찾는 것	4	.731
회피전략	친구와 나 사이에 기분 나쁜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서로 다들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4	.693
양보전략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을 친구 생각에 맞추거나 친구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친구가 하고 싶은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	4	.745
지배전략	가능하면 친구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거나 친구가 내 생각을 받아들일도록 설득하는 것	4	.636

〈표 5〉 인기아와 배척아간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전략에서의 차이검증 결과

	변인	또래지위		<i>t</i>	
		인기아 (<i>n</i> = 52)	배척아 (<i>n</i> = 41)		
의사 소통 능력	해석 능력	정보수집	<i>M</i> 26.81 <i>SD</i> 3.58	25.46 3.72	1.77
		경청	<i>M</i> 23.02 <i>SD</i> 3.62	21.17 4.81	2.11*
		전체	<i>M</i> 49.83 <i>SD</i> 5.93	46.63 7.54	2.29*
	역할 수행 능력	고정관념적 사고극복	<i>M</i> 26.19 <i>SD</i> 4.79	24.83 4.79	1.36
		창의적 의사소통	<i>M</i> 23.63 <i>SD</i> 3.16	23.10 3.50	.78
		전체	<i>M</i> 49.83 <i>SD</i> 6.88	47.90 7.12	1.31
		자기제시능력	<i>M</i> 24.98 <i>SD</i> 4.07	22.32 6.59	2.27*
		목표설정능력	<i>M</i> 22.96 <i>SD</i> 4.19	20.56 5.18	2.47*
		메시지전환능력	<i>M</i> 24.12 <i>SD</i> 4.83	21.78 5.58	2.16*
	갈등 해결 전략	절충 및 협력전략	<i>M</i> 14.50 <i>SD</i> 2.90	13.03 2.97	2.39*
		회피전략	<i>M</i> 13.88 <i>SD</i> 2.75	12.63 3.43	1.95
		양보전략	<i>M</i> 12.12 <i>SD</i> 2.92	11.88 2.85	1.90
지배전략		<i>M</i> 12.21 <i>SD</i> 2.61	11.22 2.35	.39	

**p* < .05.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척도의 차이검증에서 해석능력 중 경청(*t* = 2.11, *p* < .05)과 해석능력전체(*t* = 2.29, *p* < .05), 자기 제시능력(*t* = 2.27, *p* < .05), 목표설정능력(*t* =

2.47, *p* < .05), 메시지전환능력(*t* = 2.16,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해석능력 중 정보수집과 역할수행능력의 하위내용인 고정관념적 사고극복과 창의적 의사소통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고정관념적 사고극복과 창의적 의사소통으로 구

성된 역할수행능력을 제외하고는 인기아가 배척아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척도의 차이검증에서는 절충 및 협력전략($t = 2.39, p < .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회피전략, 양보전략 및 지배전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인기아는 배척아에 비해 절충 및 협력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에 의한 인기아와 배척아의 판별분석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에 따라 인기아와 배척아가 적절히 구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의 유의미한 판별함수($\chi^2 = 5.783, p < .05$)가 도출되었다. 표 6에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에 의한 인기아와 배척아의 판별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표준화하지 않은

〈표 6〉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에 의한 인기아와 배척아의 판별분석 결과

예측변인	판별함수 1		구조행렬 ^a
	정준판별함수 계수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목표설정능력 (상수)	.214 -4.684	1.000	1.000
고유치		.067	
설명변량		100	
정준상관		.250	
χ^2		5.783*	
df		1	
Wilks's Lamda		.937	

* $p < .05$. a :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예측변인은 제외

정준판별함수의 판별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D = -4.684 + (.214 \times \text{목표설정능력})$$

정준판별함수는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척도 중에서 목표설정능력으로만 구성되어 인기아와 배척아를 판별하고 있으며,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척도들은 인기아와 배척아 집단을 구별하는 예측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계수는 포함된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목표설정능력만 포함되었으므로 그 값이 1.000이며, 구조행렬 역시 판별함수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목표설정능력만으로 판별함수가 구성되므로 상관관계가 1.000으로 표시된다.

정준상관관계는 판별함수와 집단 간의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250이며, 고유치는 .067로 총분산의 100%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Wilks's Lamda 값과 자유도를 고려한 χ^2 통계값을 통해 판별함수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인기아와 배척아 집단의 평균 판별점수, 즉 집단중심점(group centroids)은 다음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기아 집단의 평균 판별점수는 .224이고 배척아 집단의 평균 판별점수는 -.291로 인기아는 양의 방향, 배척아는 음의 방향이므로, 판별함수에 의해 두 집단이 각

〈표 7〉 인기아와 배척아의 판별함수의 집단중심점

구분	함수
	1
인기아	.224
배척아	-.291

〈표 8〉 판별함수계수에 의한 인기아와 배척아의 분류 결과

원래집단	예측 소속 집단		전체
	인기아	배척아	
인기아	40(76.9%)	12(23.1%)	52
배척아	23(56.1%)	18(43.9%)	41
전체	63	30	93

적중률 : 62.4%

각 독립된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판별함수 계수에 의한 인기아와 배척아의 분류결과는 다음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기아 집단에 속한 52명 중 40명이 인기아로 판별되고 12명이 배척아로 판별되었으므로 판별 적중률은 76.9%이고, 41명의 배척아 중 18명이 배척아로 판별되고 23명이 인기아로 판별되어 판별적중률이 43.9%이다. 따라서 전체 판별 적중률은 62.4%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지위, 특히 인기아와 배척아 간에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변인들을 통해 집단 구분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별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기아와 배척아의 의사소통능력 차이 검증 결과 해석능력 중 경청과 해석능력전체,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력, 메시지전환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해석능력 중 정보수집과 역할수행능력의 하위내용인 고정관념적 사고극복과 창의적 의사소통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고정관념적 사고극복과 창의적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역할수행능력을 제외하고는 인기아가 배척아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기아가 배척아 사이에 의사소통능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신선영의 연구(2009), 유아놀이 상황에서 인기아가 배척아에 비해 더 많은 의사소통 시도를 하며, 인기아는 ‘기술·설명’을, 배척아는 ‘요구’의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한 송미선의 연구(1998), 또래수용성과 의사소통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Burlson, Delia 그리고 Applegate(1992)의 연구, 의사소통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사이에 정적 상관을 보고한 김진경과 유안진의 연구(2002)와 유사한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의 연령, 사용한 측정도구, 분석방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인기아가 배척아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나 기술이 높으며, 의사소통능력이 또래수용성 혹은 또래지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반면, 해석능력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과 역할수행능력의 하위요인인 ‘고정관념적 사고극복’ 및 ‘창의적 의사소통’은 모두 인기아가 배척아보다 평균점수는 높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소에 대한 행동지표(유현숙·김태준·이석재·송선영, 200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경우 선택적 정보수집, 귀납적 정보수집, 비언어적 정보수집이 통합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발달적 단계이므로 정보수집 방식이나 정도에 있어 인기아와 배척아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후 귀납적 혹은 연역적 정보 활용이 가능한 시기의 정보수집은 인기아와 배척아의 구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제안된다. 그리고 Northway(1955)에 따르면 초

등학교의 인기아의 경우 매우 정력적이며 타인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지만 창의적이기보다는 상식적이며 사회적 규범이나 기준을 따르는 경향이 많았다(강화정, 2007에서 재인용)는 연구에서 유추해보면, 초등학교 시기 인기아들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고 이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초등학교 시기가 의사소통능력에 있어 발달적으로 성, 지역, 신체적 조건, 자기편견, 전문성에 대한 편견을 가진 고정관념적 사고를 하고 역할에 종속되는 단계(이석재 외, 2003)이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둘째, 인기아와 배척아의 갈등해결전략 차이 검증 결과, 절충 및 협력전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회피전략, 양보전략 및 지배전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인기아는 배척아에 비해 절충 및 협력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기아가 ‘친구와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를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거나’, ‘친구와 나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방법’을 찾는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또래지위가 높은 아동이 갈등상황 동안 더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한다는 Putallaz (1983)의 연구와 관련 있으며,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 갈등의 회피, 양보로 해결하는 전략을 사용할수록 친구의 사회 정서적 기능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는 배선영(1999)의 연구결과 또한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갈등해결전략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 지배형 갈등해결전략보다 절충 및 협력형의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높다는 윤상은(2008)의 연구결과 역시 본 연구결과와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인기아와 배척아가 절충 및 협력형의 갈등해결전략 사용에서 차이가 난다는 결과는 회피전략, 양보전략, 그리고 지배전략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까닭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한다. 즉 인기아들은 자신과 상대 양쪽 모두에 대해 관심의 정도가 높아 양쪽이 모두 수용하거나 아니면 양쪽 모두 어느 정도 포기하여 상호 수용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회피전략이나 양보전략은 우선적으로 또래간의 갈등을 피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요구를 포기해야 하는 내적 갈등이 존재하는 전략이며, 지배전략은 상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므로 외적 갈등이 존재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인기아들은 자신 혹은 상대의 요구를 억제해야 하는 전략보다 자신과 상대방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선호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인기아와 배척아 간의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던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은 인기아가 배척아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높으며, 친구 간의 갈등상황에서 자신과 친구 모두가 수용할만한 해결책을 찾는 절충 및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셋째,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인들과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요인들이 인기아와 배척아 집단을 효과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척도 중 목표설정능력에 의해 변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을 함께 투입하여 인기아와 배척아에 대한 변별력을 검증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동일주제의 연구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의사소통능력, 특히 전략적으로 목표를 설정

하는 능력이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신선영, 2009)를 지지하면서, 아울러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게 발표하고, 타인과 계획적이며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몸짓이나 억양을 사용해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의사소통능력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유지, 전달하는 능력이 인기아와 배척아 변별에 중요함을 밝혀주고 있다. 아동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고안된 많은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들이 경청, 공감, 표현, 문제해결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는데(박영순, 2008), 이러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목표설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인기아와 배척아에 따라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이들 중 인기아와 배척아를 변별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인인 목표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과 관련해서 아동의 사회성 측정에 대한 대안적 도구 개발 및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척아를 위한 개입이나 긍정적 또래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중재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sher(1990)가 강조한 것처럼, 또래들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특히 사회적 기술인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을 통합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박영준·홍경자, 2003; 엄은나, 2007; 이영옥·천성문·류위자·정환경, 2009; 이은아, 2006)과 질충 및 협력전략 사용을 강조한 갈등해결전략 중심의 프로그램(강경아, 2004; 김진영, 2007; 장유영·

박은혜, 2006)들이 다수 있지만 두 가지 사회적 기술을 포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므로 또래 수용성이 낮은 아동 중재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인인 목표설정능력은 인기아와 배척아 집단을 효과적으로 판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목표설정능력은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 목표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목표를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개발도 가능하지만, 보다 실제적인 것은 교육현장에서 배척아를 포함한 아동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 잘 모르는 사람을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를 소개하기, 하고 싶은 말은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말하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몸짓이나 억양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질문에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 말하기, 망설이지 않고 과제 발표하기, 이해될 때까지 궁금한 것 질문하기 등의 주도적인 의사소통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글쓰기, 말하기, 프리젠테이션, 토론·토의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통해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울러 이러한 경험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교실 분위기 조성 및 실천을 위한 교사교육이 잇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또래지위를 파악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 사회성 측정법(sociometry)이다. 또래지위를 조사하는 다양한 방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인기아와 배척아를 판별하는 간판검사 혹은 기초판별검사(screening test)를 개발하고자 할 때,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과 관련된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인인 목표설정이 주요한 판별기능을 하는 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중에서 갈등해

결전락은 인기아와 배척아를 판별하는데는 유용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 중 인기아와 배척아를 판별하는 또 다른 강력한 변인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후속적으로는 인기아와 배척아의 판별에 사용되는 사회적 기술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과 같은 발달 단계별로 어떤 양상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양면이나 무시아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또래지위에 초점을 맞추어 또래관계의 특성이나 예측자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아(2004).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선영 · 김경림 · 오근남 · 권현정 · 김수진 · 이연무 · 권희경 · 서정화 · 정혜선(1987). 아동의 인기도와 제 변인과의 관계 연구. **부학**, 20, 87-90.
- 강화정(2007). 초등학교의 인기아와 배척아 결정변인 판별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남순(2003). **발달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소영(2010). 청소년의 학대경험, 갈등해결전략 및 의사소통능력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송이 · 박경자(2001). 또래지위와 친구관계에 따른 아동의 갈등해결 방식. **아동학회지**, 22(4), 69-84.
- 김외열(1989). 또래 아동이 지각한 인기아와 배척아의 제특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1997). 인기, 무시, 배척집단의 사회 기술 및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2001).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인실(1993). 인기아와 배척아의 사회적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현(2009).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사용과 정서지능의 차이.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경 · 유안진(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2), 121-135.
- 김진영(2007). 학령기 아동의 또래 간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효과.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표선(2003). 아동의 또래지위와 우정의 질 및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운학(1994). 국민학교 아동의 교우관계에 있어서 인기아와 배척아의 행동특성 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은영(1994).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승민(1993). 갈등관리훈련을 통한 대인간 갈등대처 방식의 변화과정.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순(2008). 의사소통훈련이 초등학생의 대인간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준 · 홍경자(2003).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와 교회 생활태도 변화를 위한 의사소통훈련 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17-234.
- 막인진(1989). 아동의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새마을지역개발연구**, 10, 174-186.
- 배선영(1999).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정현(2003).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

- 처행동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미선(1994). 놀이개입 상황에 있어서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행동과 의사소통 기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순(2002). 아동의 또래지위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47-159.
- 신선영(2008).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 분석.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미옥(1996). 남녀 초등학생 인기 요인 분석. **교육연구**, 14, 277-301.
- 엄은나(2007).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행동 및 또래수용도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241-261.
- 유현숙 · 김태준 · 이석재 · 송선영(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방안 연구(III). 한국교육개발원.
- 윤상은(2008).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또래관계에 대한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교육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옥인(1995). 학급내의 사회성 측정지위로 본 인기아와 배척아의 특징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미(1992). 유아의 인기도와 조망수용능력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지각조망, 인지조망, 감정조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근영(1999). 또래 간 상호작용 유형과 인기도에 따른 유아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석재 · 장유경 · 이현남 · 박광엽(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영옥 · 천성문 · 류위자 · 정환경(2009). 학급단위 비폭력 의사소통 훈련이 중학생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동서정신과학**, 12(2), 47-57.
- 이은아(2006). Rosenberg의 비폭력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배척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혜 · 고윤주 · 오원정(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39), 105-121.
- 이은혜 · 김정윤 · 오원정(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이현숙(2000). 또래집단 내에서 인기아, 공격아, 희생아의 특성비교,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옥(1991). 놀이상황에서 나타난 인기아와 배척아의 사회적 행동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연진(1998).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혜정(1997). 유아의 또래 간 인기도와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문제 해결력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유영 · 박은혜(2005). 통합상황에서 갈등해결 프로그램이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대인간 갈등해결전략 이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5(1), 73-90.
- 정선진(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의 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원식 · 강주태(1981).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하지원(2004).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정서조절능력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현인숙(1999). 인기아동과 배척아동의 정서지능과 행동특성 연구.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sher, S. (1990).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Peer Rejection. In S. Asher, & J.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3-14). New

-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her, S., & Oden, S.(1977). Coaching children in social skills for friendship making. *Child Development*, 48, 495-506.
- Betancourt, D. (2003). Helping children develop their communication skills. *Jakarta Post* (Indonesia), May 14, 2003.
- Black, B., & Logan, A. (1995). *Links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in mother-child, father-child, and child-peer interactions and children's social statu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Burleson, B. R., Delia, J. G., & Applegate, J. L. (1992). Effects of Maternal Communication and Children's Social Cognitive and Communication Skills on Children's Acceptance by the peer group. *Family Relations*, 41, 264-272.
- Coie, J., Dodge, K.,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6), 1386-1399.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New York : Basic Books.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Hazen, N. L., & Black, B. (1989). Preschool peer communication skills. The role of social status and interaction context, *Child development*, 60, 867-876.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274-305).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ursen, B., Hartup, W. W., & Koplas, A. L. (1996). *Towards understanding peer conflict*. *Merrill-Palmer Quarterly*, 42, 76-102.
- Newcomb, A. F., Bukowski, W. M., & Pttee, L., (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1), 99-128.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ollard, A. (1985). *The social world of primary school*. Eastbourne : Hole. Rinehart & Winston.
- Putallaz, M. (1983). Predicting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from Their Behavior. *Child Development*, 54, 1417-1426.
- Figgio, R. E. (1986). Assessment of basic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3), 649-669.

2011년 6월 30일 투고, 2011년 9월 5일 수정
2011년 9월 22일 채택